더위 강한 신품종 초여름배추 전남서 시범재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초여름배추 시범재배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T-전남도농기원, 기후변화 대응 협업
하라듀 등 재배적지 다각화 수급난 해소

여름배추 수급난 해소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남, 완도 등 겨울배추 주산지 전남에서 초여름배추 시범재배에 나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초여름배추 시범재배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원예농산물 기후적응형 신품종 선발과 생산확대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의 신규 재배적지 발굴 △데이터 기반 AI형 관수장치 등 국산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재배면적이 감소한 여름 배추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더위에 강한 신품종 '하라듀'와 이달까지 정식해 다음달 말 또는 7월 초에 수확하는 초여름배추를 해남, 완도, 화순 등 지역에서 시범 재배한다.

수확한 배추는 세계김치연구소와 협업으로 배추 품평을 추진해 향후 상품화 가능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배추 전국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는 전남에서 수급 해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배추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신품종 육성, 재배적지 발굴, 스마트 농업기술 적용 등 다각적인 시도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는 지난 2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여름배추 재배적지 발굴과 기후적응형 신품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익산국토청-국토정보공사 도로지적측량 업무 협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1일 청사에서 국도건설 용지보상 업무체계 개선 및 효율적인 도로측량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도로지적측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중인 도로건설사업에 대해 국토정보공사에서 설계단계부터 측량성과를 일원화하는 도로지적측량 작업을 실시, 지적오차 해소 및 시공오류 방지 등 효율적인 도로사업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익산국토청이 설계하는 설계도면에 대해 지적도를 활용한 지적중첩도 작성 업무, 보상업무 협력을 위한 연결용지도 작성 및 지적측량업무, 기관 간 유기적인 기술자문 및 교류를 통해 향후 정확한 토지보상 면적 산출 및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한 국민편익 증대 및 만족도 향상 등이 예상된다.

안경호 익산국토관리청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토공간정보 공유 및 지적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익증대를 위한 상호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기부, 녹색성장 지원 권역별 설명회

오늘 여수 개최…29일까지 전국 순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2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호남권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27일), 수도권(서울,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 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 지원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도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 시행에 대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금융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 시즌2'의 두 번째 방문지로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지역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목소리를 청취했다.

"융복합 혁신제품 지정 확대 등 민생조달 총력"

임기근 조달청장, 광주·전남서 민생현장소통 시즌2
현장간담회 갖고 규제 리셋방안 논의…구매상담도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1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 시즌2'의 두 번째 방문지로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지역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파트너십 매니저가 돼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는 1대 1 구매매칭 상담회로 진행됐다.

또 지역 조달기업과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는 MAS기업 3개사, 우수기업 4개사, 혁신기업 3개사, IT기업 2개사, 여성기업 2개사, 스타트업 2개사, 혁신제품 시장진출 희망기업 2개사 등 총 19개사가 참석해 울타리 표준화 규격 정비, SW 판로확대 지원, 조달청의 탄소중립 선도적 역할, 물탱크 MAS 계약 시 내진설계비용 반영 등 공공조달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임기근 청장은 "저출생·탄소중립 등 전략조달과 공공조달 제값주기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건의된 모든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피드백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또 광주·전남의 우수·혁신제품기업 10개사와 주요 공공기관 15개사가 참가한 '우리지역 파트너십데이' 행사에서 ㈜다원디엔에스의 '홀몸어르신 고독사 방지 솔루션' 등 기업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 상담을 지원했다.

이어 전남 장성군에 소재한 조달 우수제품(LED투광등) 제조업체 ㈜매그나텍을 방문해 "융복합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조달시장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목록부여와 혁신·우수제품 지정 활성화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특히 "민생경제 회복·안정을 이끄는 민생조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우리지역 파트너십데이가 공공조달의 실질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양경제청, 中 투자유치활동 베이징교통운수협회 등 방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활동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광양항 합동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항 및 항만 배후단지, 세풍산단 등을 중국 현지에 홍보하고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첫날인 19일에는 베이징중국교통운수협회물류연구원을 방문해 광양만권의 경쟁력과 투자 인프라를 소개하고 한중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연구원은 1982년 설립된 대형 민간 단체로 3000여개 교통·물류 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중국 교통 정책 자문과 국제 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20일에는 중국중소기업협회를 방문, 중국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수요와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광양만권 기업과의 산업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성공사례와 광양경제청의 맞춤형 투자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실질적인 투자유치 가능성을 타진했다.

유형석 광양경제청 철강화학부장은 "이번 베이징 투자유치활동은 광양항의 물류 인프라와 광양만권의 산업적 강점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주은행, 무더위쉼터 전 영업점 운영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활용…부채도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지역 전 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일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8년 은행권 최초로 무더위쉼터를 시행한 후 매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예년보다 폭염이 앞당겨 시작되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보다 한 달가량 일찍 운영하고 있다.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중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더위를 식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냉방과 함께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부채도 제공해 시민들의 편안한 여름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박성숙 영업기획부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DH오토아이, 자율주행 어라운드 뷰시스템 특허 등록

DH오토웨어 자회사…충돌 위험 요소 사전 예측·경고

자동차 전장 전문기업 DH오토웨어는 100% 자회사 DH오토아이가 AI 기반 차세대 어라운드 뷰시스템(Around View Monitoring System·AVM 시스템)의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AVM 시스템'은 AI 기술이 적용된 차량 측면충돌 경고시스템으로 차량 및 보행자 등 도로 내 충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 경고,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 특허등록에 따라 DH오토아이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품 공급에 나선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전방 시장으로부터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DH오토아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다수의 자동차 전장 기업들과 공동으로 국책과제에 참여,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구현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DH오토아이는 여러 자율주행 국책과제를 통해 딥러닝 기반의 다양한 인식 객체 검출 시스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DH오토아이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굴지의 완성차 제조기업에 자율주행 센서 제품 공급을 추진 중이다.

DH오토아이 관계자는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차세대 자율주행 안전성 향상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글로벌 자율주행 밸류체인 핵심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DH오토아이의 모기업 DH오토웨어는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공장에서 자율주행 관련 주요부품 양산을 시작,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세관, K-뷰티 수출증대 방안 등 논의

㈜바이오에프디엔씨 방문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해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지난달 21일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해 중국시장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생허가는 중국내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필요시 임상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동수 세관장은 꾸준한 연구개발로 K-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점에 감사를 전하고 ㈜바이오에프디엔씨가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활용한 FTA 혜택을 통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정현아 기자 aura@